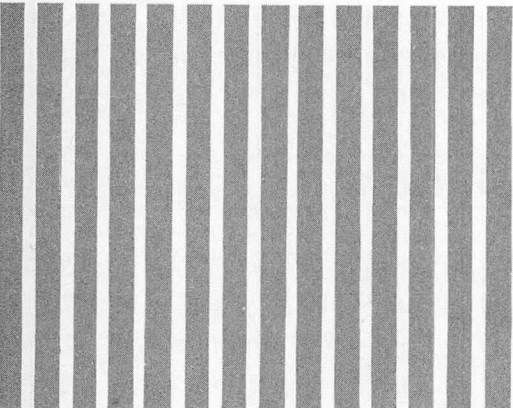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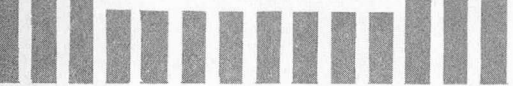


정책 분야



유철호
(축산개발연구실장)



금년 6월을 고비로 돈육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폭락이 우려됨에 따라 돈육 수출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더우기 작년 한해동안 격렬했던 미국의 시장개방압력과 위협으로 언젠가서는 돈육마저 무역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년차적 수입자유화 품목중에는 87년부터 돈육통조림이 포함되어 있고, 뒤따라 햄과 베이컨 등의 수입개방 계획이 되어 있어, 돈육수입도 시간문제로 우려되어 양돈산업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돈육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85. 12. 21~86. 1. 22) 돼지 생체 1kg당 평균 산지가격은 1,795원에서 1,481원으로 무려 17%가 떨어졌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비육돈 생체 1kg당 1984년도 생산비가 1,225원(1981년도 1,493원에서 점차 낮아져 왔음)이었으므로 곧 생산비 수준으로 떨어져 바닥세에 달하게 되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다. 또한 당국의 6월이후 가격폭락설에 자극받아 서둘러 방매하는 바람에 생산비 이하의 가격폭락은 시기적으로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하여간 국내 돈육비축량을 대폭적으로 늘인다면,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출을 하여 과잉물량을 제거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수요 및 공급전망

과거 15년간(1970~1984) 돼지고기 총소비량은 8만 3천톤에서 34만톤으로 늘어 10%씩 증가하였다. 1978~81년간은 16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부족한 국내수요를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국내공급이 계속 확대되어 1983년에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돈육가격이 상승되자 사육두수가 늘기 시작하였고, 돈육공급물량도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공급과잉을 우려 양돈협회에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중 불황을 우려하여 모돈 증식억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돼지고기 공급증가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모돈수는 작년 한해 동안 계속 증가하였고, 자돈값은 지난 12월 중순까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축협 중앙회 관측에 의하면 금년 3월에 총돼지 사육두수는 330만두, 6월에는 350만두로 늘어날 전망이다. 적정두수를 320만두로 볼 때 6월경에 30만두가 과잉생산되고 계속하여 문제는 심각하여질 전망이다. 더우기 과거의 예로 보면 여름철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둔화되므로 6월이후 수급조절은 더욱 어렵게 된다. 요즘 오래동안 바닥을 헤매이던 쇠고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소비가 부추겨지고 있겠지만 공급과잉문제가 심화될 여름철 돈육가격의 하락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2,3개월이 소비촉진운동의 적기라 할 수 있겠다.

돈육수출시장

돼지고기 세계 교역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거래돈육가격은 하향세이다. 수입량(구주공동체 지역간 교역량은 제외)은 1976~80 평균 928천톤에서 1985년 998천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우리나라 양돈업계에서 수출가능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로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구주공동체와 북미지역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양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과거 10년동안(1976~84) 일본의 돈육수입은 세계 총수입물량의 18~26%를 차지하여 왔으며, 1985년도 수입량은 245,000톤으로 추계되고 있다(이는 1984년도 우리나라 돈육생산량 340,860톤의 72%에 해당). 일본에 대한 주요 돈육수출국은 덴마크, 미국, 대만, 캐나다 등이다.

중공은 1984년 아시아지역 돈육수출의 98%(12만톤), 생체수출의 96%(325만두)를 점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가 주요한 수입국이다. 같은 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돈육수입량은 각각 55,300톤과 7,260톤이었으며 중공으로 부터 생돈의 수입량은 홍콩 300만두, 싱가포르가 4만두 수준이다.

한편 일본의 톤당 수입가격은 1980년 3,769달러에서 1984년 3,187달러로 추정되며, 중공의 수출가격은 2,100불 선이다. 한편 일본의 육돈생체 1kg당 농가수취가격(1985년 1~9월 평균가격)은 1,800원으로 우리나라 금년 1월중도별 평균 산지시세 1,500원보다 높다. 1984년도 수입가격은 1kg당 2,800원으로 서울 도매시장 1월중 평균 경락가격 2,100원과 700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비교시점에 있어서 차이나 기타 수출에 따른 제부수 비용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다 상세한 비교가 곤란하다). 따라서 일본의 농가 수취가격이나 수입가격은 과거 년수간 포함내지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내 돈육가격이 떨어질수록 대일본 수출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망과 대책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급과잉 물량이 30만두로 추정되고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국내시장에서 과잉공급분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축량을 늘린다던가 햄, 베이컨, 소세지 등 가공품의 생산량도 증가되어야 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해외 수출이다.

주요 사료곡물 수출국이 풍작으로 도입사료곡물의 국제시장 가격은 계속 내려갈 전망이므로 국내 돈육생산비는 더 낮아지겠다.

과거 돈육가격 파동때 미리미리 손을 썼더라면 돈육가격 하락폭은 훨씬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점은 돈육가격파동이 몇년몇월만에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적극적인 과잉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이 없었다. 지금에 와서 사육농가 수준에서 공급량의 자율적 규제로 수급안정기대는 어렵다. 이미 입식된 자돈은 크고 있고 모돈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돈육가격 파동으로 인한 생산의욕 저하, 사육부실로 인한 손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도입의 부진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가올 돈육의 가격하락폭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돼지고기 수출문제는 시급하고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겠다. 수출물량 결정에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겠다. 돼지사육 농가 소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수급조절과 양돈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얼핏 보기에 돼지사육농가 소득보호와 소비자보호는 양립될 것 같지 않지만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6월이후 우려하는 대로 돈육파동이 오면 사육농가의 피해가 크게되어 엄청난 자원

의 낭비이다.

이에 대비하여 과잉공급물량을 조사하고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국내의 시세조사 수출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자금의 알선 등 돈육수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은 대한양돈협회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과거 돈육수출 경험도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수출로 단기적인 과잉물량 제거에 의한 국내 가격안정 목적외에 여기서 얻은 경험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직접·간접으로 공헌하게 될 것이다. 국내 양돈업이 기업 및 전업화 추세와 사육기술의 점진적 향상, 도입사료곡물 가격이 하락으로 국내 생산비가 낮아지면 36만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직결되게 될 돈육수출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이는 또한 80년대 하반기 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다.

★사료비 절감의 희소식★

대체사료의 총아

개량종 **돼 지 감 자 분 양**

KBS-TV집중보도 (85. 9. 1, 12. 1)

※돼지감자 재배시의 사료 대체 효과

1. 평당수확량 : 돼지감자 30kg 이상 (잎, 줄기도 2kg 이상 생산됨)
2. 평당 총 대금 : 180원
3. 돼지감자 kg당 생산비 : 약17원
4. kg당 대체효과
일반사료 kg당 200원 - 17원 = 183원의 이익

- 사료의 $\frac{1}{3}$ 을 돼지감자로 대체할경우 1,000평 재배시 약400여만원의 사료비 절감
- 양돈, 멧돼지, 양토, 시슴, 대체사료로 최적

유휴지, 아산, 개간지, 밭토 등에서 잘 자라며 병충해 없고 재배가 쉬운 작물임



삼 부 농 산 Tel. 274-5604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14 성산빌딩 303호